

한나 아렌트의 자유주의 비판*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과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전혜림**

- I. 들어가는 말
- II. 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
- III. 푸코의 생명정치
- IV. 나가는 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개념을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를 선취한 자유주의 비판이라는 견지에서 분석한다. 아렌트의 주요 저작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 즉 생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추적하며, 이 과정에서 중심에 놓인 개념이 '사회적인 것'이다. 그런데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의 고전경제학 비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18세기 정치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이익추구가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며,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754).

** 연세대학교 시간강사

각했다. 즉 그들에게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공통선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의 영역인 공적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세계(World)’에 대한 ‘생(Life)’의 위협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후에 푸코가 천착했던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아렌트와 푸코는 삶의 필연성 속에서 안전보장기술로 전락한 행정으로서의 정치를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행정으로 전락한 정치가 인종주의와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고전경제학 비판이 내포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식을 탐구하고,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아렌트의 자유주의 비판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주제어

한나 아렌트, 사회적인 것, 공적 영역, 애덤 스미스, 정치경제학, 자유주의, 푸코, 통치성, 생명정치

I. 들어가는 말

현 신자유주의 시대를 진단하는 용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포퓰리즘(populism)’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같은 서구 세계라 할지라도 북미와 유럽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며, 연구자들조차도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치가들이 똑같은 포퓰리스트로 간주되는가 하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으로부터 떨어진 정치에 대한 교정 장치라는 주장도 나온다.¹⁾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지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시장으로부터 인간 삶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보장이 종언을 고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둘러싼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지고 있으며, 기득권과 엘리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혹은 르상티망) 또한 거세다.²⁾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적인 것’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한 사상가이다. 하지만 아렌트의 이론적 개념들 중 ‘사회적인 것’만큼 그 등장과

-
- 1) 얀 베르너 뮐러 저, 노시내 역,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마티, 20~21쪽 참조.
 - 2) 서구 사회의 포퓰리즘 현상을 분석한 정치 이론가인 얀 베르너 뮐러(J. W. Müller)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절망을 다름에 있어서, 포퓰리스트들은 ‘국민 우선’을 기조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는 논리 속에서 ‘배제적인 정체성의 정치’를 펼친다. 물론 이때의 국민은 언제나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존재로 정의되며, 결코 복수(plural)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포퓰리즘 정당, 혹은 극우정당의 부상으로 나타나곤 한다(앞의 책, 12쪽).

더불어 이론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거센 비판을 받은 개념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렌트의 동료이자 후배 철학자인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은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필연성과 자유라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그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사회적인 것의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이며, 사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정치 행위는 위선과 억압에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그것을 애써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 역시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자유와 필연성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생산성 없는 논의라고 일축한다. 필연의 영역(=사회적인 것)은 언제나 노동과 자원을 분배하는 권력 관계(=정치적인 것)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경제 조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는 정치경제이며, 심지어 가사 노동도 젠더에 기초한 권력 관계에 의해 분배된다는 것이 벤하비브의 주장이다.⁴⁾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해(보이며 일견 당연하게까지) 보이는 이러한 비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아렌트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 생각해서도 안 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자의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노동’의 문제가 거세된 탈정치적이고 텅 빈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각각을 구성하는 내용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렌트는 그것들을 둘로 나누어 각각이 지배하는

3) Bernstein, R. J., "Rethinking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Garrath Willams, ed., *Hannah Arendt: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p. 251.

4) Benhabib, Seyla,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California: SAGE, 1996, p. 140.

영역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분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그녀가 노리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분’의 적실성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떠나, 그 개념(구분)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재사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렌트의 저작들, 그중에서도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과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하고, 노동/제작/행위를 구분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자유주의 비판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이기심은 인류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며, 자본주의 시장을 통한 이기심 추구가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혁신적인 기술 변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스미스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는 당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공유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교역을 통한 상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미스가 범한 오류가 있었으니, 그것은 경제적 삶의 공간이 나머지 다른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흔히 자기조절적 체계로 간주되는 경제적 영역(시장)은 수많은 정치적 제도와 사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공간과 정치적 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현실의 ‘경제 이데올로기’-정치는 경제로부터 자율적이며 경제는 정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지배계급이 주입하는 관념일 뿐이다. 아렌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역시, 정치와 경제는 개념상, 그리고 기능상 분리되어야만 하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에서 경제

(사회적인 것)가 모든 영역을 잠식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의 탄생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 즉 생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귀결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사회’의 계보학이다.

한편, 아렌트의 고전경제학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유사성으로 인해 푸코(Michel Foucault)의 자유주의 비판과 연결되어 사유되곤 한다. 푸코 역시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뒤쫓는다. 푸코는 자유주의가 ‘국가’라는 존재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통치는 국가의 직접 통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를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대 권력이 정치적 지배의 목표로 삼는 대상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삶의 차원에서 생명을 돌보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근대의 생명권력이다. 한 개인의 삶이 위기에 처해졌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종으로서의 육체적 삶이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다. 인구의 성장을 위해 제도, 실천, 지식들이 고안되고 생식, 장수, 질병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며,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행정으로 대체되어 국가가 소멸되는 역설이 초래된다. 18세기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조절하려 했듯이, 20세기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통해 리스크, 불운, 사고들을 예비함으로써 생명을 관리한다.

본 연구는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과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성찰하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것의 개념 속에 담긴 자유주의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이 보여주는 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한 분석과 연

결함으로써 아렌트의 자유주의 비판을 보다 설득력 있게 구성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아렌트의 고전경제학 비판이 내포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이 공유했던 (시민)사회의 논리, 즉 상업이 문명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후에는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통해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현재성을 재고할 것이다.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은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과 노동 개념이 함의하는 바와 그 현재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II. 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

1. ‘사회적인 것’의 부상과 공적 영역의 위기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은 ‘정치의 쇠퇴’라는 아렌트의 근대사회 비판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다. 아렌트가 근대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변화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것의 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을 바로 내놓기는 쉽지 않다. 살아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집합으로서의 사회를 일컫는 것인지, 개인, 가족, 마을과 같은 분류적인 단위로서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혁명이 발명해낸 ‘연대성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사회적인 것을 논하는 이론가들의 논의와 비판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아렌트가 정의내리는 사회적인 것은 그녀가 근대를 규정하는 핵심용어로서, 그녀의 설명을 따라가면 사회적인 것의 영역(혹은 가족이 확장된 형태로서의 사회)은 자본주의적 상품교환 시장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흥미로운 것은,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

스 사회를 준거로 삼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고대 이래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구분된 실체로서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의 사적 영역(oikia)은 삶의 ‘필연성’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종족 보존을 위한 재생산과 먹고살기 위한 ‘노동(labor)’이 주요 활동을 이룬다. 반면 공적 영역(polis)은 ‘자유’의 영역으로서 필요나 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것도 아니고, 지배관계에 내재하는 불평등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다.⁶⁾ 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현상하는 영역이 공적 영역이며, 그렇기에 공적 영역은 어떤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정치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이러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도 아니고 공적 영역도 아닌, “사적인 이해에 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⁷⁾ 혼성적(hybrid) 영역인 사회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사회는 그 형식은 공적이지만 내용은 사적이다. 즉 삶의 필연성이 공적인 관심사로 등장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영역이 사회, 사회적인 것의 영역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혼성적인 영역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노예와 여

5) 벤하비브는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크게 세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자본주의적 상품 교환경제의 성장, 둘째는 대중 사회의 일면들, 셋째는 사교성, 시민사회에서의 삶의 특성이 그것이다(Benhabib, op. cit., p. 23). 벤하비브의 구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회는 대중사회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렌트가 정의하는 대중사회는 사회의 최종적 발전 상태이자 사회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사회이다(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8, 93쪽 참조). 벤하비브와 유사하게 김홍중은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영역으로서의 사회적인 것, 둘째는 통치 대상으로서의 사회적인 것, 마지막은 삶의 형식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이다. 영역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은 근대 초기의 자본주의적 시장을 가리키며, 통치 대상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은 시장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사회적인 것을 의미한다(김홍중,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 2013, 5~13쪽 참조).

6)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85쪽.

7) 앞의 책, 87쪽.

성의 노동에 의존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삶의 필연성과 자유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지 않은가? 아렌트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녀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아렌트는 인간 개념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여타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에서 탐구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아렌트에게 있어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이 놓여진 조건으로부터 사고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⁸⁾ 그리고 아렌트에게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조건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다는 ‘탄생성(natality)’과 ‘사멸성(mortality)’이다.⁹⁾ 인간은 누구나 지구에 태어나 살아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단지 죽고 사는 것만이 인간의 조건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이자, 자신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세계에서 사물을 매개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인간(Men)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men)이 거주하는 세계(world)¹⁰⁾에서 다양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

8) “우리가 인간 본성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조건지어진 존재라는 것뿐”, 앞의 책, 59쪽.

9) 앞의 책, 57쪽. 탄생성(natality)은 중요한 인간의 조건 중 하나이다. 공적영역을 구성하는 ‘(정치)행위’ 활동은 탄생성이라는 조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새로 온 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한다는 것은 탄생성이라는 조건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며, 복수의 인간의 탄생은 세계에 ‘새로운 시작’을 불러들인다. 아렌트에 따르면, 전체주의의 전략은 복수의 개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생물학적 생의 과정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위가 실행될 수 있는 세계(공적영역)가 파괴되더라도 인간은 전체주의의 지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 이 세계에 ‘탄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탄생성은 인간에게 시작하는 능력이 내재해 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며, 탄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행위를 통해 이 세계에 또 다른 시작을 불러들일 수 있다. 아렌트에게 ‘시작’은 생물학적 출생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세계에서 또 다른 시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행위의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세계로 새로 온 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을 가지며, 탄생성의 요소는 모든 인간 활동에 내재한다.

10) 아렌트에게 ‘세계’는 ‘지구(earth)’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연의 순환운동에 같

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인 조건들에 묶인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활동(activity)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활동이 바로 노동(labor), 작업(work), 그리고 행위(action)다. 노동, 작업, 행위라는 인간의 활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엮여있기에 그중 어떤 하나가 우위를 점한다고 말할 순 없으며, 아렌트도 그러한 주장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노동이 생명과정의 순환적 운동에 간혀있다면, 서로 다른 타인의 현전을 전제로 하여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정치적 활동인 행위는 오로지 인간만이 가진 능력임을 아렌트는 누차 강조한다.¹¹⁾

그런데 아렌트가 근대사회를 비판하면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반복적인 노동에 의해 지배되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게 된 현상이다. 즉 아렌트가 진단하는 근대사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의 위기이다. 공적 영역은 사적 소유지와는 구별되는 공동의 것으로, 내가(타자가) 타자(나)에 의해 현상하는 현상의 공간이자 사람들을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분리시키는 공동의 공간이다. 그것은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활동 그 자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행위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말)하고 행위하면 만들어지는 잠정적인 공간이다.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보여줌’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다원적 관점들이 교환된다. 아렌트에게 있어 말과 행위가 없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죽은 상태와 같다. 공적 영역 속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혀있는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구라면, 세계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모든 사물을 포함하는 인공적인 세계를 일컬으며, 어떤 맥락에서는 공적 영역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 11)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현시하며,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새로운 시작”(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267쪽)을 세계라는 무대에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며, 또한 행위를 통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권력’을 형성한다. 즉 다른 활동과 비교해 경중의 가치를 따질 순 없지만 아렌트에게 행위는 그 무엇보다 가장 인간적인 활동인 것이다.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재성과 더불어 세계의 실재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¹²⁾ 그런데 이러한 공적 영역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바로 사회의 부상인 것이다.

사회는 사적 영역도 아니고 공적 영역도 아닌 혼성적 영역으로, 가계의 활동, 조직 형태가 가정 내부로부터 공적 영역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적 영역에 머물렀던 경제 문제가 공적 영역의 전면에 부각된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가 두 영역 모두를 잠식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는 공적 영역처럼 공개적(public)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것의 내용은 사적 소유지와 마찬가지로 사적이다. 사회의 출현은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¹³⁾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활동을 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¹⁴⁾ 공적 영역의 상실은 말과 행위의 상실이다. 공적 영역이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행위자가 아닌 ‘소비자’로 살아가는 대중은 세계에 대한 공통감각(common sense)을 상실하고 외로움에 고통 받는다. 아렌트에 따르면, 외로움(loneliness)은 전체주의의 등장을 가능케 만든 토대가 되는 경험이다.¹⁵⁾

또한 공통의 세계(공적 영역)를 상실하면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유일한 ‘나’로서 살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도 없다. 앞서 서술했듯이 인간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현시함으로써 세계와 자기 자신의 실재성을 확인받기 때문이다. 즉 공적 영역에서 서로를 정의하고 배우며, 평등한 사람들로서 서로를 알아간다. 클로드 르포르르(Claude Lefort)는 아렌트의 공적 영역 논의를 ‘가시성과

12) 앞의 책, 103쪽.

13) 앞의 책 99쪽.

14) 앞의 책, 99쪽.

15)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16, 278쪽.

평등'이라는 두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한다.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눈에 타자가 나타나고 타자의 눈에 그들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평등과 동일한 실재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은 비가시성과 연결된다. 아렌트에게 평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현시함으로써 서로의 결정에 의해 호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평등이다. 즉 평등은 발명이다.¹⁶⁾ 공적 영역은 평등에 기반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평등이 공적 영역을 만들어낸다. 공적 영역의 몰락이 전체주의의 등장을 가능케 했듯이 신자유주의 시대 역시 공적 영역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의 부상과 경제학의 탄생을 동시적 사건으로 지적하며, 마르크스(Karl Mark)와 마찬가지로, 고전경제학(18세기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인간은 오로지 자기이해에 따라 행동하며 소유의 욕망이라는 단 하나의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는 고전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사회'의 지배를 알리는 신호로 보았고, 실제로 근대에 이르러 경제학이 모든 영역을 장악해 순응적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¹⁷⁾ 근대는 더 이상 절대군주와 같은 일인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이익이라는 이름의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름의 지배는, 고대 그리스의 사적 영역이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처럼, 각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행동양식을 기대하며 행동을 표준화(normalize)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순응주의(conformism)가 뿌리내리게 된다.

16) 클로드 르포르 저, 홍태영 역,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그린비, 2015, 82쪽.

17)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의 부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인에 대한 관료제적 지배, 현실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통계학의 대두, 행동과학의 발생 등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회과학이 사회의 주도적 학문이 된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는데(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98쪽) 푸코 역시 통계학이 생명정치의 중요한 테크놀로지로서의 '인구'를 발견하게 해주었음을 강조한다(미셸 푸코 저, 정일준 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42쪽).

2. 온화한 상업: 이해관계가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간의 사적 동을 이끌고 상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하나의 사적이 이 한다는 것을 가정한 자는 마르크스가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자들이었다.¹⁸⁾

사가 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 상관없이, ‘공산주의적 허구’¹⁹⁾를 상 필요로 한다. 이 구의 한 특은 사는 ‘보이지 않는 손’ 즉 명()에 의해 지된다는 것이다. 리가 전통적으로 국가는 정라고 르는 것은 여기에서 한 정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사를 마르크스는 ‘국가의 소’이 개으로 정히 했다.²⁰⁾

아렌트가 고전경제학,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직접 언급하는 이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다. 주지하다시피 스미스는 개별자들의 사적 이익추구가 일종의 공동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유방임시장을 옹호한 이다.²¹⁾ 스미스가 품었던 질문들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균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였으며, 그는 그 답을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방임시장에서 찾는다. 자유방임시장 체

1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96쪽.

19) 아렌트가 이 구절에서 ‘공산주의적 허구’를 ‘보이지 않는 손’과 연결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 비판에 있어서 경제 결정론을 논리로 내세움으로써 외려 정치를 폐기해버리고 정치를 순수한 교환경제로 대체해버린 것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2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97쪽.

21)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개진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초기자본주의 사회로서, 독점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 상공업자본가들이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 자본가들이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 규제를 유지하려 하자, 스미스는 이를 비판하며 독점의 폐지와 자유주의적 상업 질서를 지지한다(이근식, 『애덤 스미의 고전적 자유주의』, 도서출판 기파랑, 2006, 2장 38~54쪽 참조.)

제에서는 한 명의 이기적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의 욕구가 아닌 타인의 욕구를 읽어내야만 한다. 자신이 원하는 양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양만큼,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아닌 타인이 인정하는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야만 물건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사용할 수 있다.

리가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 점 주인과 조업자, 는 제 업자의 자비심 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이 을 중시하기 문이다. 리는 그들의 인도주의에 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 ()에 소하며, 그들에게 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게 이 을 말한다.²²⁾

그런데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애덤 스미스 이전에, 이미 그로티우스와 홉스와 같은 17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²³⁾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인과 교역과 상업으로 엮이는 상업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진다는 상업사회론으로 발전한다.

경제학자 허시먼(Albert O. Herschman)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권장하는 것은 17~18세기의 지적 풍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지적하며, 당대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돈을 버는 일, 즉 이해관계의 추구가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정념들-그중에서도 권력자들의 정념-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한다.²⁴⁾ 변덕스러운 군주, 지배계급의 정념은 공동체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몰아넣었고, 정념의 폐해에 맞서 어떻게 공동체를 보존할

22) 애덤 스미스 저, 김수행 역,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3, 17쪽. (번역은 수정)

23) 허시먼에 따르면, 17세기에 정념에 대한 분석이 정교화되기 시작하고 파괴적인 정념을 건설적인 어떤 것으로 변형한다는 생각이 등장한다. 파스칼과 같은 모럴리스트들은 물론이고 18세기 초의 비코, 맨더빌 또한 욕정, 악덕, 사욕이 어떤 매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24) 앨버트 O. 허시먼 저, 노정태 역, 『정념과 이해관계』, 후마니타스, 2020 참조.

것인가를 고민했던 근대 사상가들은 그 답을 이해관계(the Interest), 즉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이성에서 찾았다. 인간의 정념, 그중에서도 지배자의 정념은 변덕스럽고 파괴적이다. 반면 상업적인 돈벌이의 추구는 무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념에 현혹되어 눈먼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확고하고, 성실하며, 체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²⁵⁾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파괴적인 정념을 [상행위를 통해] 건설적으로 변형시킨다”²⁶⁾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가설이었고,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선취한다. 17세기의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전통으로부터, 18세기의 몽테스키외, 제임스 스투어트 경, 그리고 칸트에 이르기까지 당대 자유주의자들은 부를 창출하는 상업이 문명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다.

정치경제사가 이스트반 혼트(Istvan Hont) 역시 근대에 경제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며, 근대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처음으로 정치이론의 중심 주제로 떠오른 시기를 엄격히 살펴야 함을 강조한다.²⁷⁾ 혼트는 근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홉스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홉스는 “상업과 국가 사이의 관계”²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근대적이기 때문이다.²⁹⁾ 혼트의 분석에 따르면 18세기는

25) 앞의 책, 95쪽.

26) 앞의 책, 45쪽. []안의 내용은 인용자가 추가.

27) 리처드 왓모어 저, 이우창 역, 『지성사란 무엇인가?』, 오월의 봄, 2020, 169~170쪽.

28) 앞의 책, 171쪽.

29) 아렌트는, 혼트와 반대로, 홉스에게 있어 정치는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국가(commonwealth)의 목적을 평화와 공동방위에 두었는데, 이는 곧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 축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다. 즉 “자본 축적의 무제한적 과정은, 증가하는 재산을 부단히 성장하는 권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정치 구조를 필요”

정치와 경제의 특별한 결합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국제 교역의 성공은 민족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생존을 의미했다. 허시먼과 마찬가지로, 혼트 역시 스미스와 루소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업 사회에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상업과 교역이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온화한 상업(doux commerce)’³⁰⁾은 인간을 과거의 인습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 간의 평화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난 후, 마르크스는 자본의 원시축적을 탐구하며 다음과 같은 냉소를 내뱉는다. “온화한 상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Das ist der doux commerce!)”³¹⁾

Ⅲ. 푸코의 생명정치

아렌트의 노동에 대한 비판과 전체주의 비판은 근대의 ‘생(Life)’에 대한 통치를 강조함으로써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비교 연구되곤 한다.³²⁾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9, 296쪽)로 하는데, 이에 부응해 홉스는 “공익을 사적 이해관계에서 도출하려고 시도했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윤곽을 그렸던 사상가”(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289쪽)라는 것이다.

30) 허시먼에 따르면, ‘온화한 상업’론을 펼친 인물들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은 몽테스키외다. 『법의 정신』4부에서 몽테스키외는 상업이 야만적 풍속을 온화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와 정념을 대립시킨다.

31) 엘버트 O. 허시먼, 『정념과 이해관계』, 110쪽.

32)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분석 역시 생명정치의 일면을 보여준다. 아감벤은 『호모사케르』에서 아렌트가 ‘노동하는 인간’, 혹은 ‘생물학적 생명 자체’가 근대성의 정치적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적 영역이 변동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 생명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과정을 설

푸코 역시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근대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뒤쫓는다. 또한 아렌트의 고전경제학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푸코의 자유주의 비판을 선취하고 있다. 사회적인 것의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아렌트의 자유주의 분석과 유사하게, 근대의 사회적 것의 조절을 통한 자유주의의 통치 방식을 생명정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미셸 푸코이기 때문이다. 푸코는 통치성 강의에서 근대의 권력이 더 이상 ‘법적 주체’를 대상으로 행사되지 않고 ‘종으로서의 인간(homme-espèce)’, 또는 ‘인구’를 대상으로 삼으며, 그때의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통치의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장치임을 주장한다.³³⁾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안전이 정치권력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는 근대에 개개인의 삶(생명)이 정치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통치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푸코는 통치성이라는 개념들을 통해 근대적 통치의 두 형태를 고찰하는데, 그 두 가지 형태란 ‘국가이성-내치의 통치’와 ‘자유주의 통치’다. 내치행정이 규제, 감시, 단속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관리한다면, 자유주의 통치는 규제가 아닌, 조절(régulation)을 통해 전체 질서를 구축한다.³⁴⁾ 조절을 통한 질서의 구축이란 시장을 통한 질서의 설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세기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시장의

명한 것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연결시킨다(조르조 아감벤 저,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36~41쪽 참조). 아렌트에 따르면, 근대 사회의 토대가 되는 노동은 삶의 필연성과 재생산에 종속되어 종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행해진다. 이는 마르크스의 분석이기도 한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활동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돈이 되는 노동으로 바꾸어놓는다. 모든 활동이 생의 법칙 아래 종속되는 것이다.

33) 사카이 다카시 저, 오히나 역, 『통치성과 ‘자유’』, 그린비, 2011, 72쪽.

34) 세리자와 가즈야·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역, 『푸코 이후』, 난장, 2015, 19~40쪽 참조.

질서가 발견된다. 주지하듯이 사회가 서로 결합되어 돌아가는 매커니즘을 파헤치는데 관심을 두었던 스미스가 발견한 것이 인간의 사적인 이익을 전체 사회의 이익과 가장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었다. “스미스는 영국과 유럽인으로 하여금 시장이 어떻게 사회를 결합시키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이 성취한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질서의 체계를 세운 최초의 인물이었다.”³⁵⁾ 그리고 이러한 앞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통치는 시장을 강제적으로 외부로부터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성’을 존중함으로써 질서를 성립하고자 했다. 중세에 자연 개념은 신의 의지를 따르는 자연 질서를 의미했고, 근대의 국가이성은 인공물인 ‘리바이어던’을 자연으로 내세우지만, 중농주의와 정치경제학은 시민사회라는 제2의 자연을 발견한다. 중농주의(physiocracy)는 ‘자연의 지배’를 뜻한다.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경제를 자연스러운 흐름, 즉 자연(=시장)의 질서에 맡겨야 함을 주장하는 경제 이론이 중농주의다.³⁶⁾ 통치실천으로서의 최초의 합리화 시도인 중상주의가 “(국가라기보다는) 주권자의 힘을 요점으로 하고, 도구로서는 벌률, 법령, 규칙이라는 구태의연한 주권자의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³⁷⁾ 반면 중농주의와 정치경제학은 통치의 합리성을 주권자로부터 자율화한다. 푸코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애덤 퍼거슨, 그리고 데이비드 흄과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시작된 18세기의 정치경제학 역시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사회”³⁸⁾를 자연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유주의 고유의 통치 원리를 내세운다. 이는 시민사회를 정치사회, 그리고 법적사회와 동일시한 로크적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³⁹⁾

35)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저, 장상환 역,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12, 93쪽.

36) 김웅중, 『서양사 개념어 사전』, 살림, 2014, 319쪽.

37) 사카이 다카시, 『통치성과 ‘자유’』, 75쪽.

38) 미셸 푸코 저,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474쪽.

39) 사카이 다카시, 『통치성과 ‘자유’』, 78쪽.

이 자연 은 보시다시피 중세나 세기의 통치이 의 이 되어 이것을 지탱해 주의 자연 과는 전혀 다른 의 자연 인 것 니다. 이 자연 은 그야말로 정치, 국가이 , 내치의 인공 과 대 되는 것 니다. 이렇게 대 되는데, 그 식은 전혀 특유하고 개 적인 것 니다. 그것은 세계의 본 이라는 의미로 이해 수 있는 자연 자체의 과정들이 아니라,

인 것 니다. …… 달리 말해서 이것은 결국 그 까지 하지 않 어 것의 자연 니다. 그것은 , 즉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 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것으로서 사유되고 되기 시작한 어 것의 자연 이라는 것 니다.⁴⁰⁾

푸코가 파악한 자유주의는 경제이론이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18세기 정치이론(및 현대 정치이론)이 법과 권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사고한다면, 푸코는 기존의 정치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들로 정치를 사고할 것을 촉구한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에서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학, 정책, 제도를 포함하는 자유주의의 통치성”,⁴¹⁾ 다른 말로, 사회라는 자연을 토대로 인간을 통치하는 특수한 기술이다.⁴²⁾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해방된 힘들에 질곡이 되는 전근대적인 통치성에 대한 비판이면서, 지배자에게 신중히 경제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지령을 부단히 내린다.⁴³⁾ 그렇다면 사회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적 통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통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행사되며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가?

푸코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에서 전근대적 주권권력과 구별되는 근대의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분석한다. 푸

40)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473쪽. (강조는 인용자)

41) 미셸 푸코 저, 오토르망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454쪽.

42) 토마스 램케 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7, 81쪽.

43) 사카이 다카시, 『통치성과 ‘자유’』, 77쪽.

코에 따르면, 서양 근대의 17~18세기에 개별 신체에 집중하면서 감시, 위계, 시찰 등을 통해 작동하는 규율권력이 등장한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이 되면, 규율적이지 않으면서도 규율권력을 배제하지 않는, 생명권력이 등장한다. 생명권력은 생명과정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는 인간”⁴⁴⁾이자 중농주의자들 및 정치경제학자들에게는 부의 요소이자 원천으로 간주된 ‘인구’를 대상으로 작동하며, 삶의 증진을 기조로 ‘사회적인 것’을 통해 통치한다. 푸코에 따르면, 정치의 주체이자 대상이 인구로 전환되는 것은 정치경제학이 새로운 과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푸코는 경제 영역의 분화가 “국가의 통치화(governmentalization of the state)”⁴⁵⁾ 즉 정치를 행정이라는 의미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의 수준, 수명, 장수,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들”⁴⁶⁾ 및 삶에 우연히 닥치는 사건들의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보험기술로 대표되는 생명정치의 안전 매커니즘은 정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킨다. “국가에 의한 생명-조절”⁴⁷⁾ 달리 말하면, ‘사회를 통한 통치’에 의해 국가는 행정으로 대체되고 정치는 생명의 관리로 축소되게 된다. 생명정치는 곧 생명을 관리하는 행정이다. 앞서 보았듯이, 아렌트도 사회의 지배를 ‘보이지 않는 손’, 즉 익명의 지배로 파악하고, 이러한 지배 속에서, 푸코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행정으로 대체됨으로써 국가가 소멸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치에 대한 기술관료적 이해가 불러온 파국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의 부상, 즉 자본주의적 시장사회의 전면화와 전

44) 미셸 푸코 저,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91쪽.

45)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P. Rabinow · N. Rose ed.,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 p. 244.

46)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 나남출판, 1997, 149쪽.

47)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9쪽.

체주의적 폭력 사이에 놓인 연속성을 그려낸다면, 푸코는 근대민족국가의 기능 조건으로서의 인종주의를 발견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권력은 삶을 영위할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나눔으로써 “인종주의를 국가의 메커니즘 안에 기입”⁴⁸⁾한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아렌트는 사회의 발생과 경제학의 탄생이 일치한다고 분석하며, 경제학은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가 되어 한결 같이 일정한 행동유형을 따르며,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비사회적,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경우에만 과학적 성격을 획득할 수 있다”⁴⁹⁾고 설명하고, 익명의 지배가 표준화(normalization)와 순응주의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푸코는 생명권력이 정상(normal)과 비정상(abnormal)을 구분하고 비정상을 배제함으로써 작동함을 강조한다.

“ 한 이 사라질수 , 비정상적인 개인들이 제거 수 , 을
 화시 는 것이 어들수 ,
 , 더 해질 것이고, 더 기차게 것이며, 더 번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형의 관계 말 니다. 타인의 죽음은 히 그것이
 나의 개인적 안전을 보 해 다는 의미에서 나의 생명인 것이 아 니다.
 타인의 죽음, 불 한 의 죽음, 한 는 화된 자나
 , 더 건 하고 더 수
 하게 해 것 니다.⁵⁰⁾

푸코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생명의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개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근대민족국가의 원리로 작동한다.⁵¹⁾ 전체주의적 폭력과 인종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48) 앞의 책, 304쪽.

4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94쪽.

50)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05~306쪽. (강조는 인용자)

51)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역시 ‘사회적인 것’이 근대민족국가와 결합되어 배제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을 ‘민족사회국가(État national social)’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 우리가 통상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국가의 형태가 바로 발리바르가 개념

럼, 푸코와 아렌트 둘 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근대에 종족살해와 같은 대량 학살이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실”⁵²⁾을 마주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인 것의 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의 몰락에서 찾았다.

IV. 나가는 말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이분법과 그에 따른 노동, 작업, 행위의 구분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제적인 개념이었다. 아렌트가 그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파리코뮌, 러시아 소비에트, 헝가리 혁명의 평의회 체제가 사회문제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청 속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이분법은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렌트의 고전경제학 비판과 노동에 대한 분석에서 사회적인 것의 개념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아렌트에게서 사회적인 것의 부상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이 먹고살기 위한 노동, 즉 자신과 가족을 위한

화한 ‘민족(적인 것)-사회(적인 것)-국가’이다.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민족적 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 근대민족국가라는 것이다. 이 용어는 19세기 이래 민족국가 내에서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계급 간의 적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족국가가 민족사회국가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이 그 안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민족국가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계급 적대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사회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계 바깥의 사람들, 즉 이주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외국인들의 권리는 배제해왔다(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111~173쪽 참조).

52) Isaac, J. C., “A New Guarantee on Earth: Hannah Arendt on Human Dignity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1), 1996, p. 65.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축소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활동적 삶(vita activa)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 즉 ‘돈이 되는 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생/삶(Life)은 근대 사회에서 최고의 선이 되고, 모든 활동은 생의 법칙 아래 종속된다. 이는 각자의 이익추구와 이해관계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가 인간의 열정을 전체 사회의 이익과 가장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본 18세기 정치경제학자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때의 생은 각자만의 고유한 서사를 지닌 인간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의 생,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상의 선으로 간주되는 경제적 과정으로서의 생이다. 즉 사회적인 것의 부상 속에서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를 떠받치는 수단이 될 뿐이다. 사회의 부상은 ‘생’에의 추구를 인간 활동의 중심에 놓았고, 이는 인간을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인 ‘종(species)’ 또는 ‘조에(zoe)’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장이다.

아렌트가 분석한 나치 수용소는 사회적인 것이 공적 영역을 장악하고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다. “인간이 인간적 동물종의 표본으로 바뀔”⁵³⁾ 수 있다는 것, “동물이 특별한 동물종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종에 속하기 시작했다”⁵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의 수용소의 경험이다. 전체주의의 전략은 복수의 개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생물학적 생의 과정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구분하고, 인간에게서 법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벗겨내는 것은 나치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다.⁵⁵⁾ 아렌트에 따르면, 그것은 사회적인 것의

53)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245쪽.

54)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541쪽.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종으로만 실존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다(“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은 삶의 필연성, 개인의 보존과 종의 지속을 관리하고 보장하는 영역이다. 친밀성의 발견 이전에 사적 생활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은 이 영역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동물종의 한 종으로서만 실존했다는 점이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98쪽).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성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 즉 아렌트의 노동하는 동물은 언제든지 호모 사케르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있는 것이다.⁵⁶⁾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에 담긴 문제의식과 자유주의 비판은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18세기 자유주의 경제학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통치성은 규제가 아닌 사회의 자연성, 그리고 생식의 조절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전체 질서를 구축한다. 생명권력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함으로써, 즉 개인의 출생과 사망, 건강, 장수, 생식에 개입하고, 삶에 우연히 개입하는 위험을 조절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때의 개인은 ‘종으로서의 인간’, 즉 ‘인구’로서 파악된 개인이다.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의 영역에서의 인간이 동물종의 한 종으로 간주됨을 지적하듯이 푸코는 생명정치의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체, 인구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푸코는 생명권력의 ‘죽이는 기능’에 주목한다.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력, 즉 생명권력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죽이는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푸코의 인종주의에 대한 고유한 분석을 만나게 된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국가의 죽이는 권리와 살해의 기능은 인종주의를 통해 가능해진다. 생명권력은 생명 일반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고,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종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죽이는 것을 승인한다. 즉 인종주의는 만인의 안위를 목표로 행해지며, “인구의 내부에서 집단들을 서로 갈라놓는 방식”⁵⁷⁾인 것이다. 인종주의는 특수주

55) Kathrin Braun, “Biopolitics and Temporality in Arendt and Foucault”, *Time & Society*, 16, 2007, p. 9.

56) André Duarte, “Biopolitics and the Dissemination of Violence: The Arendtian Critique of the Present”, 2005, (<http://www.hannaharendt.net/index.php/han/article/view/69/102>, 2021.3.11)

57)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305쪽.

의의 논리에 입각한 배제의 논리가 아니다. “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⁵⁸⁾으로서의 인종주의는 보편주의적이다.⁵⁹⁾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하고 18세기 정치경제학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소환할 때, 이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으로 전락해버린 정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고 있다. 정치가 관료적인 행정으로 전락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혐오의 범람이다. 번스타인은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을 “근대에 인간을 관례화하려고 하는-인간의 자발성과 복수성을 제거하려는-모든 경향”⁶⁰⁾으로 정의한다. 번스타인의 정의는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려준다. 번스타인이 지적하듯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의 지배 아래 차이들을 은폐하는 추상성과 익명성은 텅 빈 보편성을 향해 달려간다.⁶¹⁾ 하지만 텅 빈 보편성에의 추구가 도달하는 곳은 종족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차별과 혐오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진 상태이다. 복지국가(사회국가)는 그 시효를 다했고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폐기처분되는 운명에 처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것과 사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복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사회적인 것의 복원을 위해,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복원한다고 할 때, 그 사회란 근대사회, 즉 근대민족국가가 기획했던 그 사회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역사학자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이 ‘정치 영역을 갖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정치가 소멸된’ 적색 개발주

58) 앞의 책, 306쪽.

59) 최원, 「인종주의라는 쟁점」, 『문학과사회』 19(3), 2006, 260쪽.

60) 리처드 J. 번스타인 저, 김선욱 역,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아모르문디, 2009, 175쪽.

61) 앞의 책, 80쪽.

의 국가로 성장했을 때, 대중이 독재를 묵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사회적인 것의 획득)에 대한 선망과 승인이었음을 지적한다. 즉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⁶²⁾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의 관계를 보다 변증법적으로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아렌트는 사회가 자신을 현상하는 방식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을 집요하게 파고든 현대 사상가들 중 한 명이다. 우리가 ‘사회’의 복원을 논할 때, 그 사회란 근대민족국가가 기획했던 그 사회는 아닐 것이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의 재고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62) 박노자, 『러시아 혁명사 강의』, 나무연필, 2017, 167쪽.

• 참고문헌

<연구논저>

1. 국문문헌

김응중, 『서양사 개념어 사전』, 살림, 2014.

김홍중,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 2013, 1~33쪽.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저, 장상환 역,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12.

리처드 J. 번스타인 저, 김선욱 역,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아모르 문디, 2009.

리처드 왓모어 저, 이우창 역, 『지성사란 무엇인가?』, 오월의 봄, 2020.

미셸 푸코 저, 정일준 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_____저,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_____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 나남출판, 1997.

_____저, 오토르망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_____저, _____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박노자, 『러시아 혁명사 강의』, 나무연필, 2017.

사카이 다카시 저, 오하나 역, 『통치성과 ‘자유’』, 그린비, 2011.

세리자와 가즈야 다카쿠와 가즈미 엮음, 김상운 역, 『푸코 이후』, 난장, 2015.

얀 베르너 뮐러 저, 노시내 역,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마티, 2017.

에티엔 발리바르 저, 진태원 역,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애덤 스미스 저, 김수행 역,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07,

앨버트 O. 허시먼 저, 노정태 역, 『정념과 이해관계』, 후마니타스, 2020.

-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도서출판 기파랑, 2006.
- 조르조 아감벤 저,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 최원, 인종주의라는 쟁점, 『문학과사회』, 19(3), 2006, 255~273쪽.
- 클로드 르포르 저, 홍태영 역,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그린비, 2015.
- 토마스 램케 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7.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8.
- _____ 저, 이진우 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9.
- _____ 저, _____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16.

2. 서양서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 1998.
- _____,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Inc, 1976.
- Braun, Kathrin, “Biopolitics and Temporality in Arendt and Foucault”, *Time & Society*, 16, 2007, pp. 5~23.
- Benhabib, Seyla,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California: SAGE, 1996.
- Bernstein, R. J., “Rethinking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Garrath Willams, ed., *Hannah Arendt: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Duarte, André, “Biopolitics and the Dissemination of Violence: The Arendtian Critique of the Present”, 2005,
(<http://www.hannaharendt.net/index.php/han/article/view/69/102>, 2021.03.11)
- Foucault, Michel, “Governmentality”, P. Rabinow N. Rose, ed., *The Essential*

Foucault, New York: The New Press, 2003.

Isaac, J. C., “A New Guarantee on Earth: Hannah Arendt on Human Dignity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1), 1996, pp. 61~73.

Hannah Arendt's Critique of Liberalism

—Focusing on Arendt's Concept of the Social and
Foucault's Concept of Biopolitics—

Jeon, Hye Rim^{*}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which is the most problematic concept of Hannah Arendt from the standpoint that Arendt's idea of the social is the critique of liberalism preempting Michel Foucault's biopolitics. Arendt's major works trace how liberal governmentality (obsession with life) through markets in capitalist society resulted in totalitarian violence. In her studies, the social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placed at the center. And, the understanding of her critique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understand Arendt's concept of the social. The classical political economists in the 18th century assumed the market's spontaneous order through civil society as a kind of common good. In other words, they believed the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became the interest of the whole,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created the social order. However, Arendt regards the phenomenon that the social dominates the public sphere as a threat of 'life' to the 'world'. This is also the subject Foucault later pursued. Arendt and Foucault grasp politics which has been reduced to a series of technologies that manage security and security of the population in the inevitable of life as the core of modern politics. This study explores some important aspects of the social implied by Arendt's critique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 Part-time Instructor, Yonsei University

proves that Arendt's theory still tells us important things through comparison with Foucault.

Key words: Hannah Arendt, the Social, Public Sphere, Adam Smit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Liberalism, Foucault, Governmentality, Biopolitics

필자 E-Mail: potudan@naver.com

투고일: 2021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9일

